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사순 제5주일
2021. 03. 21. (나해) 제2260호

대구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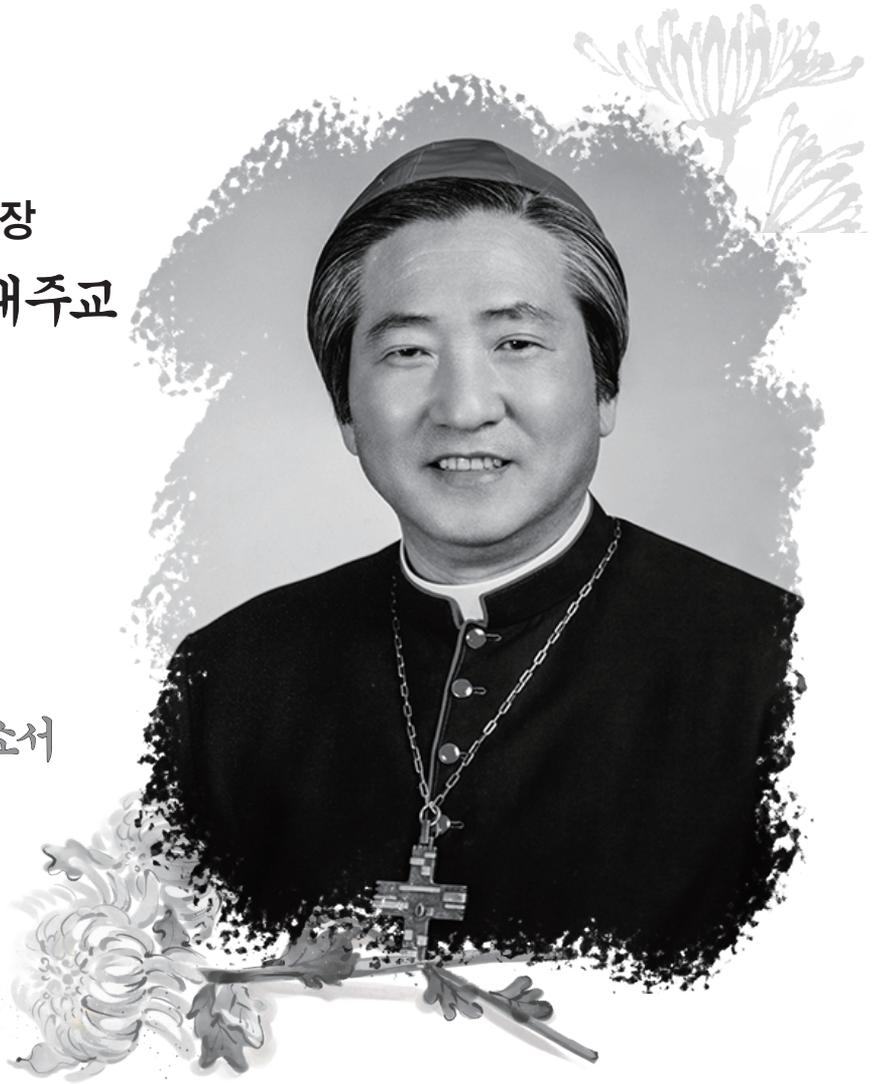
대구대교구 제8대 교구장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

2021년 3월 14일 선종

주님, 당신 종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예레 31,31-34 **화답송**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제2독서** 히브 5,7-9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 **복음** 요한 12,20-33 **영성체송**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마지막 소원



교구 사회사목국장 | 이태우 프란치스코 신부

저는 지금까지 소임을 하면서 특별히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이나 선종하시는 분을 만날 기회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우 한 분의 모습이 제 마음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요셉 할아버지와 가족들과의 사별 여정이 떠오릅니다.(코로나19사태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할아버지께서는 80대 초반의 말기 암 환자로, 호스피스 병실에서 생의 마지막으로 자신의 여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병세가 악화되어 병자 성사를 요청하게 되었고, 저는 성사를 집전하러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성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요셉 할아버지와는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왔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만남을 통해 그분의 인격적인 성숙함은 물론이고 신앙인으로서의 깊이와 믿음에 대한 확고한 모습은 방문할 때마다 참으로 제게 귀감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병실에 들어섰을 때, 병실에는 요셉 할아버지 주위로 가족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요셉 할아버지께 병자 성사를 집전하고, 가족들에게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거나 미처 못했던 말씀을 하시라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은 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더러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요셉 할아버지는 “신부님,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저의 마지막을 함께해 주고 사랑한다는 말까지 들으니깐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가족들의 따스한 배웅 속에서 선종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저마다 정말 따스하고 좋은 분이셨다고, 아버님과 사별은 너무 안타깝지만 아버님을 생각하면 항상 고맙고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의 마음에 소중한 선물을 하나씩 주고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이 죄책감과 상실감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할아버지께서는 선물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배려하신 것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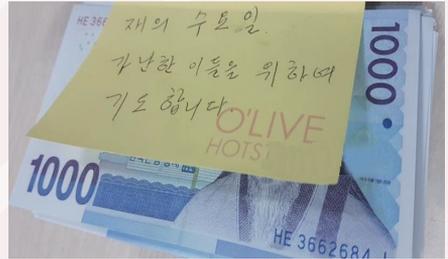
요셉 할아버지의 죽음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귀한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저는 요셉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사별 여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새로운 소원이자 곧 마지막 소원이기도 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요셉 할아버지처럼 맞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은 어떤 것인가요? **궤**

기도와 정성이 기적으로 이어지는 순간

대리구 사회복지사 | 전연실 올리아

부활절,
병자와 고통 받는 이, 죽임을 당한 이,
이 밖에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사순모금함 속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도문 중에서 -



부활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모여진 본당의 사순모금함을 봉헌하기 위해 사회복지지원들이 모였습니다. 교우분들이 채워주신 소중한 모금함을 개봉하던 중 아주 특별한 모금함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모금함에는 지폐와 함께 여러 장의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까지 매일 한 장씩 펜으로 푹푹 눌러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도문'이었습니다. 본당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 전달받은 모금함 속 쪽지 기도문에서 교우의 정성 어린 위로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각 본당에서 봉헌한 사순모금액은 대리구 사회복지회에서 함께 모아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에게 씁니다. 어느 본당을 통해 힘겹게 암 투병을 하는 교우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습니다. 수술비가 부족해 병마와 싸우며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대리구 사회복지회에서는 의료비와 함께 희망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문 쪽지들을 함께 전해드렸고, 몇 달 뒤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순모금함은 한 해 동안 위기에 빠진 이웃들의 생계비 및 의료비,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사는 이웃들의 주거개선비,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겨울·여름나기 지원사업,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 그리고 본당 내 사랑실천을 더 잘 이루기 위한 교육 및 육성, 프로그램개발,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특화사업 등으로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사순모금을 통해 또 다른 작은 기적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궤**

낮에도 별은 빛나고 있음을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뜨다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뜨게 해 주는 책. 이 책에는 살아가며 마주하는 많은 사회적 문제, 신앙적 고민에 대한 사목자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가 담겨 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기를 바라던 이들에게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느라 주변과 바깥세상을 보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준다. 『낮에도 별은 빛나고 있음』이라는 제목처럼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인도한다.

내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지 않고 신앙인으로서의 양심과 가치관을 어떻게 삶 속에 발현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또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분명히 책에서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냉담 중이거나 교회에서 멀어진 주변 지인들을 다시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초대하는 선물로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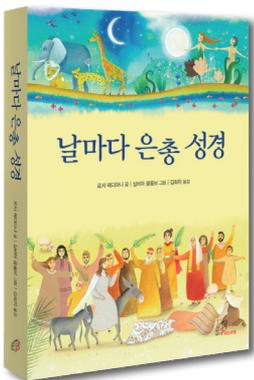


이석균 지음 | 240면 | 13,000원 | 생활성서사

날마다 은총 성경

성경 안에 숨은 듯 보이는 큰 그림 찾기

구약 성경 46권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이야기, 지혜로운 임금 솔로몬, 토빗과 토비아, 슬기로운 왕비 에스테르 등이 실려 있다. 아울러 기드온 전쟁, 용감하게 순교한 엘아자르, 예언자 예레미야, 수금 소리가 멈춘 이야기, 빛의 축제, 성실하신 하느님처럼 털 알려진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59개의 이야기가 씨실과 날실처럼 엮여지면서 구약성경의 큰 그림을 그린다. 아울러 신약성경 27권에서 43개 이야기를 꺼내어 들려준다. 즈카르야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예수의 탄생과 세례, 카나의 혼인 잔치,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던 니고데모, 나자르가 무덤에서 나온 이야기, 발을 씻어 주는 예수, 스테파노의 순교와 바오로의 부르심 그리고 하늘나라 예루살렘으로 그림을 마무리한다. 이렇듯 구약과 신약의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탄생한 고유한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만나는 자세와 그들을 대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만나게 한다. 그것은 또한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알아차리도록 이끌어준다.



로사 미디어니 지음 | 실비아 콜롬보 그림 | 김희자 옮김 | 244면 | 26,000원 | 바오로딸

한신애(韓新愛) 아가타는 충청도 보령에서 양반의 서녀(庶女)로 태어났으며, 장성한 뒤 한양에 살던 조례산의 후처로 들어가 살았다. 그러다가 1795~1796년 경 여희장 강완숙 골롬바의 전교 덕택으로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었다.

이때부터 아가타는 전처의 딸과 함께 열심히 교리를 배워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그런 다음 강완숙의 집을 왕래하면서 정복혜 칸디다 등과 함께 교회 일을 도왔고, 자신의 종 소명을 강완숙의 집으로 보내 교리를 배우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800년 여름 주문모 야고보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다.

아가타는 그동안 다른 가족과 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천주교에 입교시킬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열심히 교리에 밝은 남자 교우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우선 종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들 때문에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반면에 그녀는 김연이 울리아나를 비롯하여 많은 여성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강완숙과 함께 여성 공동체를 이끌어나갔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정복혜가 천주교 서적과 성물들을 거두어 오자 아가타는 이를 자신의 집 공간에 숨겨두었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그녀의 이름이 박해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고 말았다.

이후 한신애 아가타는 형조로 끌려가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당하였지만,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어느 누구도 밀고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강완숙, 김연이 등 동료 8명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고,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당시 형조에서 그녀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신애 아가타
(? ~ 1801년)

“한신애는 천주교에 빠져 이미 여러 해 동안 실천해 왔으며, ... 강완숙과 체결하여 주문모를 찾아보고 세례와 세례명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각처의 남녀 무리들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서적과 교회 물건들을 공간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된 후에는 ‘스스로 지은 죄를 생각해 보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파견 부제 사제 서품식

일본에 파견중인 대구대교구 소속 부제 2명이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교구민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품식 영상은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원철(마르첼리노 아파메아) 도동성당
3. 20(토) 11:00
후쿠오카교구 주교좌 다이묘성당
(<https://youtu.be/-e8lb-6Z3vi>)



남시진(스테파노) 상모성당
3. 21(일) 13:00
나가사키교구 주교좌 우라카미성당
(<https://youtu.be/HguOddYyWP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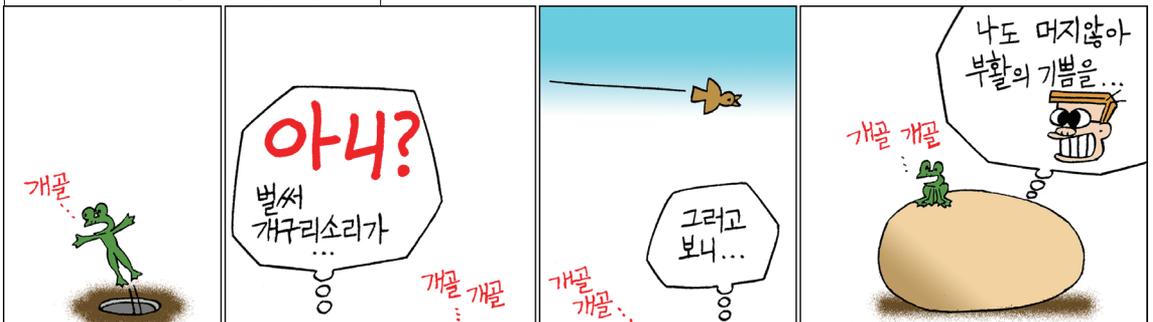
I. 『사랑의 기쁨』의 의미

사랑의 기쁨, 가정 안에서 체험하는 사랑의 기쁨은 또한 교회의 기쁨입니다. 시노드 교부들이 지적한 대로 혼인의 위기를 드러내는 많은 표지들이 있지만, “가정에 대한 갈망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고동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 영감을 줍니다.” 이러한 갈망에 대한 응답인 “가정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선포는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권고 『사랑의 기쁨』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리스도인 가정들의 혼인과 가정이라는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대, 헌신, 신의, 인내의 미덕으로 충만한 사랑을 지킬 것을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불안전하거나 평화와 기쁨이 없는 가정생활에서 모든 이가 자비와 친교의 표징이 되도록 촉구하기 때문입니다.(1, 5항 참조)



조금만 더 잘 참고 견디면

박성규 엘리시오



미사 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3월 22일(월) 11:00 도량성당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미사	3월 23일(화) 14:00 신암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22일(월) 11:00 계산성당		3월 23일(화) 19:30 다사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3월 27일(토) 11:00 순례자성당		3월 24일(수) 10:00 죽도성당
-	-		3월 24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성소 | 피정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4,3(토) 18:00~4(일) 13:00

장소: 서울 돈암동 수도원

문의: (010)6804-4904

해독, 효소단식 성경 통독 피정

몸을 해독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힐링시간

일시: 3,25(목)~28(일) 3박 4일

장소: 성모솔숲마을

문의: (054)373-3955 / (010)6630-3816

스승예수제자수녀회 사순 피정

일시: 3,27(토)~28(일)

장소: 스승예수제자수녀회

서울 본원

문의: (010)9816-0072

<http://pddm.or.kr>

교육 | 모집 | 기타

바오로딸 영성 프로그램

글쓰기: 4.6 매주 화 14:00 8주간

말씀테라피: 4.7 매주 수 14:00

주교님과 함께하는 성시간:

4,17(토) 15:00 사전예약

문의: (010)6681-5185

휴먼 모래놀이 상담사 3급 과정 모집

일시: 4,17(토) 9:00~16:00

4,18(일) 10:00~16:00

장소: 남대영기념관 예성상담센터 4층

문의: 629-1117 / (010)6414-8114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일시: 2021.2~12(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대상: 15세 이상 남자

문의: (02)828-3600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수시 가능

검색: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 (010)7470-7966

대구가톨릭요양원 입소어르신 모집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

문의: 616-2141 / 615-2141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녀

(비신자 포함)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억두(이오스딩), 배성근(베드로), 김원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성영(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열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올리안나)
배대욱(임파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신랑각시결혼

전문작·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원교(요안나) | 28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일월매트총판 | 온수매트

한일의료기 | 게르마늄매트

소금좌욕기 |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로 45 전사잔 1층 239호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장앞

053-959-7175
010-9597-7175

힐스피부과

색소·어드름·리프팅·알러지·샤마귀·피부종양

원장 박상훈(요셉)

☎ 053)431-3377

대구 2,3호선 청라언덕역(성모당) 9번 출구
척탑병원 3층

37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광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가람소방방재(주)

- ◆ 소방시설점검 ◆ 소방안전관리대행
- ◆ 종합정밀점검 ◆ 소방관련기술교육
-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연씨노비르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필경(안드레아) 신부
1936년 3월 23일

행사 | 모임

바나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3.25(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대안성당

정미연 개인전 「현존」

일시: 3.24(수)~4.5(월)
장소: 서울 명동성당 갤러리 1898
출품작품: 회화 200점, 조각 16점

교육 | 모집

청년청소년국 청년학교 수강생 모집

과목: 틴스타, 리더십, 선택
대상: 청년(비신자, 신자, 재수강 가능)
마감: 3.31(수)
문의: 교구 청년사목 담당, 264-2030
<http://www.jesusclub.or.kr>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교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사군자문인화,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캘리그래피, 서양화, 일반꽃꽂이, 플룻,
발성법, 우쿨렐레, 섬유공예, 피아노,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청소년 무료 자격증 취득, 진로체험 모집

1차: 3.15(월) / 2차: 수시

대상: 학교 밖, 후기 청소년
과목: 드론, 요리, 가죽공예, 네일아트,
바리스타 / 문의: 474-4840
주최: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마감: 3.31(수)
과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 영어
문의: 593-1273

채용 | 안내

수성성당 사무장 채용

나이: 30~50대 초반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문의: 수성성당, 742-0224

성요셉복지재단 봉사자 채용

분야: 사무원, 생활재활교사,
시설관리업무 담당
자격: 관련 업무 자격소지자
(60세 미만)
문의: (054)954-4176
<http://josephtown.or.kr>

SOS프란치스카의집 직원 채용

분야: 요양보호사
서류: 이력서 접수(자사양식)
문의: 986-2077
<http://sos-silver.or.kr>

칠곡가톨릭병원 건축기사 채용

업무: 신축병원 설계 발주 등
우대: 건축시공 또는 감리 10년 이상
경력자, CAD 가능자
문의: 총무팀, 320-2121

농장관리 및 경작하실 분 채용

근무: 포교베네딕도수녀원 농장
대상: 55세 미만 건강하신 분, 농장
관리 및 농작물 재배 경험이 있는 분
문의: 포교베네딕도수녀원,
313-1001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정연(도미니카)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8~9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외과 이수윤(소피아), 홍정흠(대건안드레아)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원룸,투룸 용달이사

환의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척탑병원 3층
청리연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우리 부모님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싶다면!

인지 재활 중점

마더요양원
MOTHER SANATORIUM

원장 박 동 근(마르첼리노)
이사 이 현 숙(레 지 나)

경산시 강변동로 112 경산역 앞 T. 053)815-9988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연말 소독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 문의: 053)250-3158, 252-5392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 신축건물 이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정 초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25년 전통
천주교 결혼정보회사

거들 짝

초혼, 재혼, 노블레스

전국 대표전화 1566-6205
wedmate.co.kr



천주교대구대교구
CATHOLIC ARCHDIOCESE OF DAEGU



대구대교구 제8대 교구장
故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1935~2021)님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 열정과 헌신의故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



1965년 사제 서품



1972년 보좌주교 서품식



1981년 마르데테사 대구 방문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대구 방문



1986년 이문희 대주교 교구장 축좌식

“우리는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왔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계명이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실천이 신앙공동체에서 없을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구장 이임 감사미사 中)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며,
특히 진심으로 사랑하는 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제수품 50주년 금경축 미사 강론 中)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1요한 4,8)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성경구절처럼 사랑을 참 많이도 이야기하셨던 故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 교회의 내적 성장 뿐 아니라 소외된 이들을 돌보기 위한 복지 사업에 힘을 쏟아온 이 대주교님은 3월 14일 오전 1시 20분,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신 그 인고의 세월을 마감하시고 마침내 하느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1935년 9월 14일 대구에서 태어나신 이 대주교님은 사람들을 하느님 곁에 두고자 사제의 길을 선택하시고 1965년 12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제품을 받은 지 7년만인 1972년 10월 7일 당시 37세의 나이에 한국 최연소 주교로 서임되었습니다. 이 대주교님은 14년간 보좌주교로서 교구 안팎의 주요 실무를 담당하여 대구대교구 발전의 초석을 다지셨습니다. 당시 교구장이셨던 서정길 대주교님을 보좌하며, 1979년에 대구가톨릭병원을 개원했으며 1982년에는 대구가톨릭대학교(당시 선목신대학)를 개교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천주교회 200주년(1984년)을 기념해 본당 설정 및 새성당 건립운동을 시작하여 1980~90년대 폭발적인 교세 성장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셨습니다.

1986년 7월 5일 마침내 제8대 교구장으로 착좌하신 이 대주교님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를 사목표어로 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1997년부터 2년간은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교구 제1차 시노드를 개최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한국 교회 최초로 대리구제를 실시하여 교구를 현재의 5개 대리구 체제로 전환하고 소공동체 모임 활성화와 복음 나누기 등을 통해 교구민 복음화에 전력을 다 하셨습니다.

또한 한일 주교단 교류모임을 통한 한일 교회간 일치와 화해에도 이바지 하셨으며, 2005년에는 북한 함경북도에 라선국제가톨릭병원을 설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순교자 현양과 성지개발에도 누구보다 큰 노력을 기울이셨던 이 대주교님은 한티피정의 집과 관덕정순교기념관 설립, 각 성지 개발을 비롯해 이윤일 요한 성인을 교구의 제2주보로 모시는 등 교구민들이 순교신심을 키우는데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성탄메시지 中)



특별히 소외된 이들을 위한 나눔을 강조해 오신 이 대주교님은 사회복지 활성화에 큰 힘을 기울이시어 각종 복지기관 운영 등 교구 카리타스 체계를 세우셨습니다. 해외 선교사에게 필요한 환자수송 차량을 지원하는 선교단체인 미바회의 한국 초대 총재로서 2004년에는 남수단에서 활동했던故 이태석 신부님의 발이 되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본당 수는 79개에서 147개로, 신자수도 20만명에서 41만명으로 2배로 교세가 확장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 이 대주교님은 2007년 교구장직을 은퇴한 후에도 교구 100년사 편찬위원회를 결성하여 교구 100년사를 정리하셨으며 한국 데이아르 연구회, 한국 여기회 등의 활동과 호스피스 봉사 등에 꾸준히 헌신해 왔습니다.



이 대주교님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란 사목표어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목자로서 모든 열정을 쏟아 내셨습니다. 교구장 재임 21년, 주교로 산 49년의 삶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정리: 교구 문화홍보국)

▶ 문장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SICUT IN COELO ET IN TERRA

▶ 약력

- 1935년 9월 14일 출생
- 1954년 3월 4일 경북 고등학교 졸업
- 1959년 3월 25일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정치학과 졸업
- 1962년 6월 29일 프랑스 리옹 신학대학 철학과 졸업
- 1965년 12월 23일 사제 수품(France St. Sulpice 성당, Blanchet 대주교 주례)
- 1966년 6월 23일 프랑스 파리 가톨릭대학교 신학부 졸업
- 1966년 7월 20일 ~ 1966년 12월 23일 동촌 성당 임시 주임
- 1966년 12월 23일 ~ 1967년 12월 29일 청주교구청 근무
- 1967년 12월 30일 ~ 1969년 1월 29일 가톨릭 액션 협의회 담당사제
- 1969년 4월 4일 ~ 1972년 4월 30일 군중신부(공군)
- 1972년 11월 30일 대구대교구 보좌주교 수품, 교구 총대리
- 1977년 7월 8일 ~ 1978년 5월 2일 계산동 주교좌성당 주임
- 1985년 1월 5일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 승품
- 1986년 7월 5일 대구대교구 대주교좌 계승, 교구장 취임
- 1993년 10월 15일 ~ 1996년 10월 17일 주교회의 의장
- 1994년 10월 ~ 2000년 9월 로마 한인신학원 총재
- 1996년 11월 14일 ~ 1999년 10월 13일 주교회의 성직주교위원회 위원장
- 1999년 10월 14일 ~ 2004년 10월 14일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 2005년 10월 ~ 2007년 3월 29일 주교회의 성직주교위원회 위원장
- 2007년 3월 29일 대구대교구장 사임
- 2021년 3월 14일 선종

❖ 장례일정 ❖

- 선종일시 : 3월 14일(일) 오전 1시 20분
- 빈 소 : 주교좌 계산성당 및 모든 성당
- 추모미사 : 3월 15일(월) ~ 16일(화) 06:30 10:00 15:00 17:00 19:30
- 장례미사 : 3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주교좌 범어대성당
(장례미사 영상은 유튜브[가톨릭평화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삼우미사 : 3월 19일(금) 오전 11시, 천주교 군위묘원

선종하신 故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님을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